

나 홀로 '트리 맛집' 찾아 수제 케이크 즐긴다

MZ세대들의 특별한 크리스마스 눈길 “평범한 트리 싫다” 대형·이색 트리 앞 ‘인생샷’ 찍기 유행 가면 쓰고 입장 안주·술 ‘무료’...주점들 솔로 이벤트 개최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어하는 광주·전남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늘고 있다. 과거 누군가가 주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기다리는 것과 달리 스스로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지마세요 '솔로 이벤트'=특별한 크리스마스지만 홀로 보내야 하는 MZ세대를 노리는 이벤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 동구의 한 술집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23일부터 24일까지 솔로 MZ세대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2시간동안(오후 7시~밤9시)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며 친구를 사귀면서 즐거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참가비는 없으며 주류와 안주를 무료로 제공한다. 특이점은 참가자들이 가면 쓰고 가게로 입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면 쓴 참가자들이 서

로의 낙내임에 따라 짝궁을 선택하면 함께 커플 게임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게 된다. 이후 예능 연애프로그램처럼 최종적으로 상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각 12명씩 총 24명을 모집한다. 광주시 동구의 한 카페에서도 '커플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달 23일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솔로파티를 연다. 광주·전남에 사는 26살~36살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 축제 MC를 섭외해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참가비 5만원에 각종 커피와 샴페인, 와인, 각테일 등 주류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게임을 통해 상품도 제공된다. 특히 운영진과 가게 매니저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블랙리스

트 제도를 통해 불쾌감을 주는 이들은 퇴장되며 재참여가 불가능하다. <트리가 영업 치트키...MZ들 예쁜 트리 찾아 다닌다= 크리스마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캐롤'과 '크리스마스 트리'다. 광주·전남 MZ세대들은 광주 곳곳에 설치된 크리를 찾아 다니며 인증사진을 남기고 있다. 특히 광주시 동구 민주광장과 아시아문화전당, 남구 양림동 펍킨마을, 광산구 임방울거리 등에 설치된 대형트리에 MZ세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트리에 설치된 전구에 불빛이 들어오는 야간에 대형트리 주변으로 사진을 찍기 위한 MZ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맛집과 카

페는 크리스마스 한달 전부터 대형 트리를 설치하면서 광주·전남 MZ 발길을 이끌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SNS에는 '트리 맛집 추천' 게시글이 올라오며 트리가 크고 예쁜 가게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장식이 많고 화려할수록 인기가 많다. 집에 설치하기 쉽지 않은 대형 트리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인생샷'을 남기는 등 크리스마스 기분을 만끽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광주지역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광산구 첨단동의 일명 '시리단길'의 한 건물에는 2개 층에 맞먹는 규모의 산타 풍선을 설치해 MZ들이 몰리고 있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의 한 카페에서는 곰인형으로 트리를 장식했다. 목포의 한 카페는 성인남성의 3배 크기의 트리를 설치해 사진찍기를 위한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케이크도 개성시대=크리스마스 연인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구매하던 케이크도 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상품보다는 특별한 나만의 수제 케이크 주문이 늘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 MZ들은 SNS로 원하는 디자인의 케이크를 선택하고 직접 픽업하고 있다. 맛이 특별한 건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되면 한달 전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쉽게 구할 수 없을 만큼 인기가 치솟고 있다. 수제케이크는 눈사람 모양, 산타 얼굴, 루돌프 얼굴 등 크기와 디자인도 다양하다. 쿠키로 쌓아만든 케이크부터 와플로 만든 케이크, 마들렌으로 쌓아올린 케이크, 도시락 크기의 작은 케이크 등 케이크의 재료와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사는 김차민(여·22)씨는 "크리스마스는 생일만큼 특별하게 챙기고 있어서 케이크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걸로 예약했다"면서 "특별하게 맛있진 않지만 사진찍기에도 좋고 느낌도 나서 한달전 부터 예약했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오늘 또 내린다는데...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린 21일 광주시 북구 운암3동 주민들이 지난 밤 이면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관광안내소 통역사 고용 안정 보장하라”

전국플랫폼노조 규탄

광주시 관광안내소 통역안내사들이 광주시에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플랫폼노조연합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역 18명의 통역안내사들이 소속된 관광안내소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통역안내사들을 실직 위기로 내몰겠다는 광주시의 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12일 광주시관광공사와 계약을 맺고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탁했다. 광주시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지난해까지 광주시관광협회에 지정 위탁해 왔으나 올해 감사를 이유로 수탁기관을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광주시관광공사가 맡기로 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양림동역사마을, 아시아문화전당,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관광안내소

는 폐지하기로 해 통역안내사들이 실직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수탁 계약 내용에 포함된 전일빌딩, 김대중컨벤션센터 2곳에는 안내소가 설치돼 있지 않아 관광안내소를 할 수 없다고 비판도 나왔다. 노조는 “광주시가 올해 수백만원 비용을 들여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광안내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는데, 1년만에 다시 수천만원을 들여 설치하겠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광주시는 기존 통역사들의 고용 안정 책임을 ‘관광공사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전가했고, 관광공사는 되레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며 “채용 절차상 내년 1월 1일부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통역안내사를 저버리고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것은 안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5·18유족회 “조사위 미진한 조사 결과 보완 대책 마련” 촉구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 유족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법적 활동 시한 종료로 앞두고 “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미진한 조사 결과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사위가 ‘발포명령·책임소재 확인’ 등 핵심 과제들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할 처지(광주일보 12월 21일자 6면)여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이다. 유족회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유족과 광주시민은 조사위가 5·18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행

방불명이 된 시민들이 어디에 있는지 등 은폐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고 4년을 기다렸다”면서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 대한 진척 상황이나 미진한 점 등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나마 공개한 조사 결과도 기존에 밝혀졌던 사실 외에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진상조사 보고서는 국민과 유족, 5·18왜곡·편향 세력들까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며 “조사위 조사가 부실하게 종료된다면, 조사 결과가 오히려 다른 왜곡과 편향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족회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국민과 유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성과와 미진한 점을 소상히 공유해야 한다”며 “미처 밝히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 및 후속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발포명령자, 행불자 등 5·18 핵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애초 활동 시한이 2년이었으나 각각 1년씩 두차례 연장해 오는 26일 조사 활동을 종료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유족들 “정치적 중립·전문성 갖춘 인사로”

여순사건 유족들과 순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순 10·19사건(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단원들을 정치적 중립 인사, 전문성 있는 인사로 재구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여순사건순천유족회와 순천시체육회 등 10개 사회단체들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기획단 단원은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인사들로 밀실에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여순사건 진상보고서기획단

단원 15명을 구성해 발표했다. 이 중 법률전문가·학계·전문가 9명의 단원들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역사 왜곡 발언을 하는 등 극우 인사로 구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체들은 “여순사건의 본질을 규명할 학계 및 전문가 한 명도 없고, 법률전문가 또한 여순사건과 무관한 인물들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인

시집

정리인 시선 043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